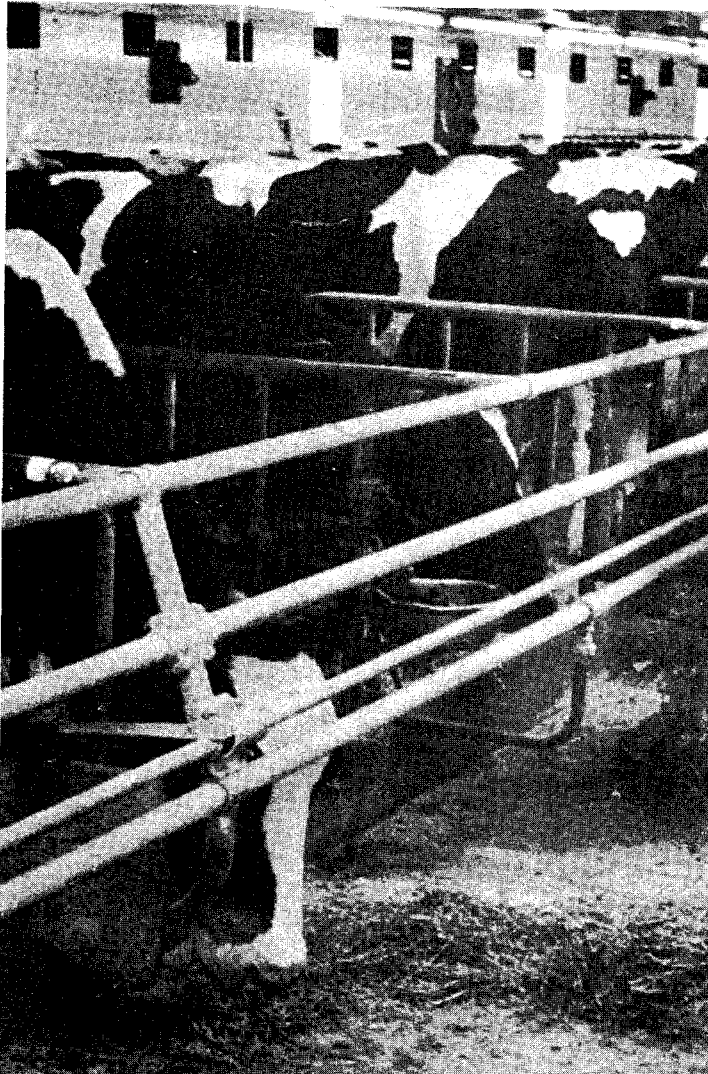


겨울조사료 준비를 위한 건초만들기

이 상 범

(국립종축원 대관령지원장)



□ 머리말

젖소와 육우를 사육함에 있어서 사료의 근본적 이용수단은 여름철에는 영양가가 높은 목초의 청초이용과 방목이용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겨울철에는 양질의 사일리지와 건초·근채류 등 조사료를 급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비싼 농후사료의 급여량을 줄임과 동시에 소의 영양을 좋은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유와 고기를 생산하는데 있다.

건초는 겨울철 조사료로서 뿐만 아니라 목초하고기·환절기 또는 분만후의 어미소 사육, 환축(설사 연변)의 고장증 예방 사료로서 방목전에 급여하며 송아지 소화기관의 발달촉진과 육성사료로도 이용되고, 육우에서는 비육하는데 중요한 조사료로 쓰이게 된다.

양질의 건초는 비타민 등 가축 사양에 중요한 것이지만 그 품질은 작물의 종류, 예취시기의 작물 생육상태, 초지관리, 수확방법, 기후조건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또 산야초와 목초는 그 조제시기가 각각 다르다. 그러나 예취시기는 목초와 산야초가 우기에 해당되므로 양질 건초조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건초조제는 대부분 불량한 기후적 조건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질 좋은 건초를 얻기 위하여는 많은 연구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1. 건초조제 요령

건초조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경비가 적게 들며 우리가 흔히 이용되는 자연건초법에 대한 조제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 한다. 우리는 건조를 말할 때 야초를

우리는 건조를 말할 때 야초를 건조한 것을 야건초라고 하고 목초를 건조한 것을 목건초라 한다. 이들 건초는 태양열과 바람, 공기의 유통 등으로 자연적으로 건조시키게 된다.

영년목초와 영년야초는 예취작기에 재생력에 영양을 미치지 않는 시기에 예취하도록 한다. 또한 재생력과 예취후 초생유지를 고려하여 너무 짧게 베지 말고 또 건조중에 비에 맞으면 양분 손실이 많아 양질건초를 얻을 수 없으므로 적어도 3~4일 이상의 날씨를 보아 아침 일찍 예취를 시작하여 아침이슬이 마를 때에 베기를 끝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일조시간을 보다 길게 이용하게 되어 유리하다.

아침이슬이 마른 후에 예취하게 되면 작업이 용이하고 변색의 염려는 없으나 작업량이 적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풀에 이슬이 많고 뒤집어 줄 여유가 없을 때는 이슬이 마른 후에 예취토록 한다. 예취는 산야초나 논두렁, 도로변 등에서는 풀을 낮으로 벤후 한곳에 모으지 말고 얇게 펴서 널어 태양빛에 잘 쪼이도록 말리며 바람이 잘 통하게 헐렁헐렁하게 놓는다.

건조중에는 하루 3~4회 정도 낮으로 뒤집어 주어 건조를 촉진시킨다. 반전횟수가 많을수록 건조가 빠르다.

저녁이 되면 원추형으로 모아 두거나 줄을 지어 모아서 이슬을 맞는 부분이 적게 한다. 밤에 비가 올 것 같으면 비닐 등으로 모은 것을 덮어 놓는다.

아침이슬이 마르면 이것을 다시 펴서 어제와 같이 하루 3~4

회의 뒤집기를 계속한다. 이와같이 뒤집기를 3~4일 계속하면 완전히 건조가 된다. 건조가 된 것을 아는 방법으로는 많은 건초를 조제해 보면 건초를 한번만 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으나 초심자는 한웅큼의 건조된 풀을 양손으로 세계 비틀어 보아 비틀어진 부분에서 약간의 수분이 비치게 되면 수분함량이 20%이하가 된 것이므로 이 정도 되면 다발을 지어 거뒀들이도록 한다(쌓아두면 수분이 15%이하로 떨어짐)

날씨가 좋은 날이 계속될 것으로 보면 저녁에 모으는 작업을 생략하도록 한다. 특히 두과작물이 많을 경우에는 모으고 해쳐 널고 할 때에 잎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건조조제중 뒤집기를 한번도 하지 않고 말리면 7~10일이 소요되나 1일 3~4회 뒤집어 줄 경우에는 3~4일이면 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뒤집기는 건조조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된다. 초지에서 목건초를 조제할 경우에는 트랙터에 의한 "모아"를 사용하여 예취하게 된다. 화분과목초의 반전에는 「헤이데다」가 좋으며, 두과목초는 예취후 「헤이콘디쇼너」로 줄기를 눌러주는 것이 좋다.

두과목초에서 「헤이데다」를 사용하여 되면 건조가 튕겨지므로 잎이 다 떨어져 나가서 줄기만 남

게 된다.

「헤이콘디쇼너」는 두과목초의 줄기를 눌러 부수므로 건조가 한층 빠르다.

넓은 면적에서도 뒤집기작업은 하루에 2~3번 하도록 한다.

비가 올 것 같으면 「헤이레키」로 크게 모아 비닐로 덮어둔 후 비가 개인 다음 퍼말린다. 건조된 풀은 「레키」로 모아 사람이 전을 쳐서 새끼로 묶어 「트레라」에 싣도록 한다. 「헤이베라」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끈포차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비가 자주 오는 나라에서 「헤이베라」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수분 15%이상) 건초를 「헤이베라」에 의하여 끈포하면 풀이 떠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포장에서 직접 「헤이베라」를 쓸 수 있는 경우는 40~50%에 불과하며 거의 창고에서 집초운반된 건조된 풀을 「헤이베라」로 끈포하여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낮을 가지고 「헤이레키」로 모은 건초를 전을 쳐 새끼로 묶게 되면 운반도중이나 건조창고에서 마르게 되어 「헤이베라」사용시보다 3~3일 정도는 빨리 거두어 들일 수 있다.

혼과목초를 포장에서 건조할 경우 두과목초의 마르는 정도를 잘 살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표 1. 작물 생육시기별 사료가치(%)

초 종	제 조 시 기	건 물	조 단 백 질	전 분 가
오차드그라스	잎이 펴 많다	90	18.7	54.1
	잎이 많다	90	15.0	51.7
	개화초기	90	12.1	51.2
	개화후기	90	10.4	49.5
알 팔 파	잎이 많다	91	22.3	50.1
	개화초기	91	16.2	44.1